

[문제1]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은 단어가 등장한 목적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나)의 단어들을 언어의 신속한 전달과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들로 분류할 수 있다. 가스거나 추카추카, 살양하눈 등의 단어는 그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소통을 위해 기존의 단어들을 생략, 축약하거나 의도적인 변형을 가한 것이다. 반면 (나)의 나머지 단어들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를 가리키거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행동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로 분류할 수 있다. 삼포시대와 같은 단어의 경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능청남이나 운도남/운도녀 등의 단어는 기존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후자는 전자와 대비된다.

이를 제시문 (가-1)의 논지에서 본다면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자와 같이 화자의 의도를 신속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에 친근감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은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같은 사고 체계를 공유하는 것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내의 사회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제시문 (가-1)은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1)은 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 상황이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 규범을 파괴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제시문 (가-1)과는 달리 제시문 (가-2)의 논지에서는 후자의 언어 현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후자와 같이 일탈적인 상황이나 구성원에 대해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사회적 차원으로는 사회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기존의 사회규범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일탈적 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을 근거로 후자의 단어군에 비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다)는 사회 규범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한국의 경우 마약은 처벌의 대상이며 소지나 운반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만큼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네덜란드나 미국의 몇몇 주들의 경우 마약은 합법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보수화되어 마약이 유행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불법화 되었던 마약이 최근 들어 합법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규범은 장소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시문 (라)의 A국가에 대해 제시문 (다)의 사례들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1999년부터 A국의 사법시험 여성 지원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A국가에서 사법시험과 법조계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에게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반면 B국가의 경우 1999년도와 2008년도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때 10여년간 사회 규범이 변화를 보이지 않았거나 변화하였다고 해도 변동폭이 미미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였으나, 1999년 이미 A국가에 비해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2배이상 높았으며, A국이 1999년에서 9년이 지난 2008년에 가서야 B국가의 1999년 여성 지원율과 같아졌다는 점은 B국이 A국에 비해 여성에 대해 좀더 개방적인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분석과는 반대로 A국에 대해 오히려 경직된 사회 규범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A국가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지원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이러한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의 지원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A국에서 사법시험의 위상이 그대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A국의 지원자의 총계가 대부분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 반면, B국의 경우 A와는 달리 지난 10년동안 큰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8년의 경우 1999년에 비해 사법시험의 위상이 약해져있다고도 볼 수 있다.